

##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스크 기부

산업안전보건공단, 5680매 전달

안전보건공단 노·사(이사장 박두용, 위원장 이태형)는 5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스크 5680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한 마스크는 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자출 참여로 성금 1000여만원을 조성해 구입,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큰 서울, 인천, 의정부 등 수도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전달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배포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비대면 교육

장애인고용공, 15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과정에는 신청자가 강의활동계획서, 추천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교육생 선발 기준이 강화됐으며, 기존과 매월 신청과 달리 연 2회 신청·접수로 변경하고 미신청자 예비 순번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됐다.

교육생 모집과 선발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상반기 교육은 4월~15일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edu.kea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SSG닷컴, 용인시와 지역농가 소비촉진 맞손

SSG닷컴은 지난 4일 경기 용인시와 ‘용인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이 달부터 SSG닷컴은 용인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수매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품 판로를 제공하며, 용인시는 농산물 정보 제공과 관계 기관의 협의와 조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가운데), 최택원 SSG닷컴 영업본부장 상무, 우미라 조은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용인시

## 도미노피자, 희망나눔캠페인 통해 아동 후원

온·오프라인 할인에 기금 적립까지

도미노피자가 주문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후원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미노피자의 ‘희망 나눔 캠페인’은 피자과 사이드디시, 음료까지 각 카테고리 별 1개 제품 이상을 한 번에 주문 시 온라인 20%, 오프라인 15% 할인 혜택과 함께 주문 건당 400원씩을 적립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을 후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적립된 기금은 소외계층 어린이 의료비 지원 및 소아질환 연구, 아동복지에 지원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지원사업과 연계해 예체능 부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다양한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 애슐리, 소외계층 지원 ‘나눔식탁 캠페인’

이랜드재단과 이랜드이츠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애슐리 나눔식탁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랜드재단과 이랜드이츠의 애슐리가 4일부터 진행하는 애슐리 나눔식탁 캠페인은 고객이 애슐리쉐프박스를 구입하면, 수익의 일부를 소외 계층에게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애슐리 쉐프박스는 기존 패밀리 레

스토랑 애슐리 매장에서 인기 있는 메뉴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이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상품으로, 나눔식탁 캠페인을 맞아 쉐프박스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해당 금액만큼 이랜드이츠와 이랜드재단이 추가 매칭해서 기부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미술정치인들의 뒤틀린 욕망



홍경안

시시일각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직 문화예술기관장이 은밀히 타 기관 채용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본다. 뽑아만 주변 지역에 뼈를 묻을 것처럼 말하던 그때 그 사람은 온데간데없다. 막상 자리에 앉으니 한눈부터 판다. 직업윤리나 기관에 대한 책임의식을 묻는 건 시간낭비다.

예술이 입신양명의 수단에 불과한 이에게 ‘노욕’이라는 비판과 절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은 일평생 쌓은 존경과도 기꺼이 교환토록 만든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궁한 오늘을 냉정하게 평가할 훗날의 역사조차 두렵지 않다.

정치계도 그렇지만 미술계에서 또한 더 높은 자리와 권력에 대한 속물적 태도를 지닌 이들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많은 미술인들은 예술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미술을 통한 사회적 역할과 본인의 태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나, 오로지 예술이 출세의 수단인 ‘미술정치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험상 미술정치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권력이다. 권력의 확보는 존재의 증명과 지위, 욕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존재란 권력의 배치이자, 욕망의 배정이고 미술은 그 권력과 욕망을 현실로 변환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매개이다. 또한 권력의 생성은 조직체에서의 직위나 지

위에서 획득되며, 질과 무관한 페이지상의 화려한 경력은 그 지위 및 직위를 얻기 위한 전략적 수사이면서 일종의 미백제이다.

이 중에서도 권력은 욕망과 관계가 깊다. 욕망은 요구된 욕구에 의해 요청되지만, 늘 결핍과 결여만을 남긴다. 플라톤의 말마따나 그것은 각자의 영혼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쉽게 충족되지 못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욕망 앞에 만족이란 불가능하다. 어쩌면 프로이트가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 뿐”인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에게 욕망은 권력 의지 또는 생의 의지, 자본의 의지 등의 충족의지에 비례해 본능적 능동태를 유지한다. 욕망 자체는 우리 삶의 에너지이고, 활동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동력으로 기능한다. 일정한 목적을 향한 기회의 제고와 보다 확장적인 세계에 다가설 가능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하나 인간은 곧잘 욕망의 동력을 변질시켜 해악한 이기조차 ‘선(善)’으로 합리화한다. 미술정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할 정도로 분출되는 욕망은 때로 ‘동물적 욕망’으로 퇴색되기 일췌이다. 종종 예술의 아름다움을 휘장으로 삼는 타락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미술정치인들이 권력이 되고픈 이유는 ‘통제하는 힘’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사회관계 내부에서 저항을 무릅쓰고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여야 하는 모든 기회와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작품과 재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욕구다 미술계 내 존재감, 어떤 의미마저 바라는 미술정치인들에게 권력의 속성인 통제의 힘은 꽤나 매력적이다. 구조와 계급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며 자신들보다 비열등한 다수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다. 남들이 뒤라 하던 남루한 생명이 실존함을 과시할 수 있으니 그보다 고풍적인 게 없다.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렵다. 동종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끼리끼리 철저한 공생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간다. 최상위부터 하위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된 피라미드형 권력 지형도를 만든 채 학연, 지연, 계보 등을 적재적소에서 발현시키는 특유의 방식으로 권력을 가속화, 고착화한다.

하지만 미술정치인들은 잠시 거머쥔 권력과 뒤틀린 욕망이 야욕의 결과요, 머잖아 폐기될 것임을 알지 못한다. 과감의 말마따나 욕망의 독(?)을 수평화할 수 있는 재량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채 결국 끝없는 결여와 결핍만이 남아 자신의 목을 조른다든 사실에도 수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의 가치를 권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자기장 아래 예술을 들 수 있다고 믿는다. 욕망의 본질인 소유욕의 폐단이다. 현실권력에 저항하는 미적 자장의 영향력을 모르는 무지함이다. 비술수록 풍요로워지는 삶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미술평론가

## ‘가정의달’ 파리크라상, 판매수익 일부 기부

15일까지 ‘어린이 행복 나눔행사’ 이벤트 제품 매출일부 아동 지원

파리크라상이 가정의 달을 맞아 관련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어린이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되며, 오는 15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 제품의 매출 일부를 저소득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농어촌가정, 위기가정 등 보살핌이 필요한 국내 아동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제품은 ▲감사와 존경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으로 장식한 조각 케이크 ‘미니 플라워 초코 생크림’과 ‘미니 플라워 생크림’ ▲상큼한 체리 맛을 즐길 수 있는 ‘구겔호프 케이크’ ▲알록달록한 꽃 모양의 ‘꽃 쿠키’ ▲동물 모습을 형상화한 ‘주(ZOO)쿠키’ 등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섬유탄

소나노과장 제경희 △산업기술정책과장 안세진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선기 △석유산업과

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서기관 승진 △통상교섭본부장실 김이경 △감사담당관실 권순만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도철 △산업정책과 최익현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이원규 △산업기술정책과 최혜진 △지역경제총괄

과 김동용 △에너지혁신정책과 김기일 △에너지효율과 이주영 △원전환경과 김홍국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성만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송지현 △무역정책과 최윤석 △무역진흥과 신희숙 △수출통제협력추진단 이영주 △사

동차항공과 황윤길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김종연 △석유산업과 신유철 △통상법무기획과 최경신 △투자정책과 주현동

◆NH투자증권 ◇상무대우 △Advisory실장 이주승

◆한양증권 (신임)◇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배성수 △자산운용본부장 정진욱 (승진)◇이사 △디지털혁신부 류상호 △준법감시부 고명섭 △영업무 이미옥 ◇부장 △O&T부 박상훈 △감사부 박재우 △PI부 정현영

◆테라젠바이오 ◇대표이사 사장 △황태순 ◇상무 △김태형(NGS/빅데이터) △박승병(BIO IT 솔루션) ◇이사 △김종수(해외영업) △오문주(개인유전체 R&D) △정수연(신약개발) ◇이사대우 △김해숙(유전체 실험) △홍창표(연

구기획) △홍경원(헬스케어허신) △안용주(마이크로바이옴) △장민후(커뮤니케이션) △홍성의(생정보)

### 부음

▲염복애씨 별세, 문성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문성권(전 국방부 보안정책과장)·문성만(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문성진(서울경제신문 정치부 부국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6시,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2-2072-2011.

▲서박봉(82)씨 별세, 서남권(경기도소통협력국)씨 부친상 = 4일 오후, 고충종합병원 장례식장 2층, 발인 6일 오전. 061-830-3300.